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6, pp.41-80  
<https://doi.org/10.29212/mh.2025..136.4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6·25전쟁기 연합국번역통역국(ATIS)와 중공군 포로신문

이상호 |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 목 차
1. 서 론
  2. 6·25전쟁기 ATIS의 전선 투입
  3. 포로신문조서와 노획문서의 분류와 체제
  4. 중공군 포로신문과 노획문서를 통한 정보 획득
  5. 결 론

**초 록** 본 연구는 6·25전쟁기 중공군 포로에 대한 포로신문에 있어서 포로신문관(interrogator)과 이들에 의해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이들 포로신문관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미 극동공군 요원, ATIS 요원, 한국인 요원, 군 정보국 요원 등이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ATIS요원이고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바로 일본계 미국인 2세(Nisei, 니세이)이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ATIS는 1950년 7월 7일 한국전선에 배치할 ATIS 전선부대(ADVATIS)의 조직을 급편했다. 즉 ADVATIS는 전선에 파견된 예하 부대인 전방제대를 통해 북한군 및 중공군 포로에 대한 신문, 각 파견대 및 사단 파견대에서 보내오는 노획문서를 분류, 정리, 번역하여 전략정보, 전술정보 등을 분류하고 이를 도쿄의 ATIS본부로 이송하였다.

ADVATIS가 수행한 작업은 매우 방대하였다. 12월 2일 현재까지 9만 5천명의 포로를 1차 심사했으며, 그 가운데 1760명의 포로들에 대한 신문을 수행하였고, 2788개의 신문보고서를 작성했다. 또한 문서 수집에 있어서는 18톤에 해당하는 노획문서를 정리, 평가, 번역하였다.

포로신문과 함께 중공군으로부터 압수하거나 노획한 문서 등도 ATIS에 의해 체계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적의문건'(Enemy Documents) 시리즈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전략정보(Tactical Intelligence) 및 지리정보(Geographic Intelligence)로 분류 정리하기도 하였다.

결국 중공군에 대한 포로신문은 대부분 니세이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졌고, 이는 전투부대가 필요로 하는 중공군의 전투서열, 지휘체계, 전투 수단 등 아주 중요한 정보를 유엔군에 전달함으로써 전쟁수행에 중요한 기여를 담당하였다.

주제어(Key Word) : 포로신문, 포로신문관, 연합국번역통역국, 일본계 미국인 2세, 신문보고서, 적의문건, 전략정보, 지리정보

## 1. 서론

냉전사의 세계적 석학인 존 루이스 개디스(John L. Gaddis)는 그의 저서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We Now Know—Rethinking Cold War History)』에서 소련 붕괴 후 새로운 자료를 통해 냉전사의 전체적인 구조와 원인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sup>1)</sup> 냉전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6·25전쟁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어떨까? 한때 이 전쟁을 미국 학자들은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라고 불렀다.<sup>2)</sup> 최근에 호주 국립대학의 테사 모리스-스즈키(Tessa Morris-Suzuki) 교수는 ‘잘못 기억된 전쟁(the misremembered war)’이라고 평했다.<sup>3)</sup> 이외에도 ‘끝나지 않은 전쟁(unending conflict)’이라는 표현도 있다.<sup>4)</sup>

6·25전쟁 연구에서 노획문서와 포로신문에 관련된 기구와 인물에 대한 분야는 아직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영역이다. 특히 노획문서와 포로신문을 담당했던 연합국번역통역국(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ATIS)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최근에야 시작되고 있다.<sup>5)</sup> 또한 포로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실

1) John Lewis Gaddis, *We Now Know: Rethinking Cold War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존 루이스 개디스 지음, 박진영 옮김,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사회평론, 2002)]

2) Clay Blair, *The Forgotten War: America in Korea 1950-1953*, New York: Doubleday, 1987.

3) Tessa Morris-Suzuki, *The Korean War in Asia—A Hidden History*, Rowman & Littlefield, 2018.

4) Sheila Miyoshi Jager, *Brothers at War: The Unending Conflict in Korea*, New York: Norton, 2013.

5) 이상호, 「전후 연합국번역통역국(ATIS)의 일본인 귀환자 심문과 공산권 첩보활

제적으로 포로와 실제 접촉했던 기구와 인물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았다.

전쟁포로는 일반적으로 생포 후 신문<sup>6)</sup>을 받게 된다. 포로가 된 당사자는 제네바협약 제3협약의 제17조에 따라 신문을 받을 때에는 “그 성명, 계급, 출생년월일 및 소속군 번호, 연대 번호, 군번을 진술하여야 하며, 또는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1, 2차 세계대전에 관한 내용을 볼 때 우리는 포로신문에 있어 다양한 방법(고문, 협박, 살해)등을 통해 적의 정보를 취득하려는 경우를 알고 있다. 이러한 제1, 2차 세계대전의 폐해를 시정하고 국제적 인권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 1949년 제네바협약이다. 하지만 이후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최근의 이라크전쟁에서

---

동, 『한일민족문제연구』 제33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17); 백재예, 「체계적으로 관리된 성폭력, 일본군 ‘위안부’ 제도: 연합군번역통역부(ATIS) 심문보고서를 통한 재고찰, 『사회와역사』 통권 114호 (한국사회사학회, 2017); 이상호, 「한국전쟁기 연합군번역통역국(ATIS)과 북한문서의 노획, 『역사와현실』 제109호 (한국역사연구회, 2018); 이상호, 「포로신문보고서를 통해 본 일본군 출신의 북한군 활동과 북한의 친일과 숙청, 『한일민족문제연구』 제39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20); 김상규, 「한국전쟁기 중국인민지원군 노획문서 고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미 NARA RG 242문서군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제77집 (한국외국어대학교역사문화연구소, 2021); 정병준, 「한국전쟁기 미군이 노획한 ‘북한노획문서’의 구성과 특징, 『이화사학연구』 제62집 (이화사학연구소, 2021); 이상호, 「미군정기 연합군번역통역국(ATIS)의 정보활동, 『청계사학』 제29호 (청계사학회, 2025).

- 6) 우리 사회에서 포로를 통한 정보 획득을 위해 질문하는 것을 보통 ‘심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용어는 일본 용어를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이는 한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데, 심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한자 용어가 있다. 하나는 심문(審問, inquiry)으로 이는 통제를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질문을 의미한다. 반면에 심문(尋問)은 주로 일본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본래의 뜻은 ‘찾아가서 물어봄’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를 포로심문(捕虜尋問)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포로에 대하여 통제된 조건하에서 직접 질문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체계적인 방법은 신문(訊問, interrogation)이라고 한다. 즉 심문(尋問)이라는 용어는 일본식 용어를 쓰는 것으로 이를 지양하고 신문(訊問)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도 이에 따른다.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합동참모본부, 2003), 262쪽.

알 수 있듯이 전쟁포로에 대한 가혹한 인권유린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6·25전쟁의 포로 연구는 지금까지 미국이나 공산국(북한 및 중국)의 포로정책<sup>7)</sup>, 포로대우와 같은 포로관리와 정전회담 직전의 포로교환<sup>8)</sup>, 반공포로석방과 그 영향<sup>9)</sup>, 중립국포로송환<sup>10)</sup>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하지만 포로에 대한 개별적 연구나 포로수용소에서 면담 등 포로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여 활용했는지, 그리고 포로의 진술에 대한 진위여부 판별문제 등 실제 포로관리로부터 얻어진 군사정보와 그 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것이 없다.<sup>11)</sup>

본 연구는 6·25전쟁기 중공군 포로에 대한 포로신문에 있어서

- 
- 7)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네바협약: 1949년 8월 12일』 (외무부, 196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국방군사연구소, 1996); 김승태, 「6·25전란기 유엔군측의 포로정책과 기독교계의 포로선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1호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4);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 8) 이상호, 「한국전쟁기 미군의 공산포로 ‘미국화교육’」, 『역사와 현실』 제78호 (한국역사연구회, 2010); 최혜린, 「6·25전쟁기 미군의 포로 정책 전개 양상: 전범조사부와 민간정보교육국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제63집 (서울대학교인문대학국사학과, 2017).
- 9) 김학재, 「진압과 석방의 정치: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와 국민형성」, 『제노사이드 연구』 제5호 (제노사이드연구회, 2009); 김행복, 『반공포로 석방과 휴전협상』 (백년동안, 2015); 방준영, 「아이젠하워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승인과정과 반공포로 석방」,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0호 (한일군사문화학회, 2015); 정찬대, 「광주상무대 포로수용소 실태 현황과 포로석방 사건: ‘반공포로수용소’ 사례 연구」, 『역사연구』 제37호 (역사학연구소, 2019).
- 10) 이선우, 「한국전쟁기 중립국 선택 포로의 발생과 성격」, 『역사와현실』 제90호 (한국역사연구회, 2013); 박영실, 「정전협정 체결 후 비무장지대 반공포로수용소 발생사건」, 『아세아연구』 제58권 제4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4); 김혜인, 「망명의 기록, 난민의 시간: 한국전쟁기 중립국행 포로 주영복의 수기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48집 (상허학회, 2016); 정병준, 「중립을 위한 ‘반공포로’의 투쟁: 한국전쟁기 중립국행 포로 76인의 선택과 정체성」, 『이화사학연구』 제56집 (이화사학연구소, 2018).
- 11) 윤성준, 「한국전쟁기 북한의 점령정책과 조선인민의용군의 동원: 미군포로심문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89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19).

바로 포로신문관(interrogator)과 이들에 의해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6·25전쟁기 북한 및 중공군 포로 가운데 본 연구는 우선 중공군 포로에 대한 신문관을 중심으로 기술하려고 한다. 이들 신문관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미 FEAF(Far East Air Force, 극동공군) 요원, ATIS 요원, 한국인 요원<sup>12)</sup>, MIS(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군정보국)요원 등이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ATIS요원이고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바로 일본계 미국인 2세인 이른바 니세이(Nisei)이다.

모니카 김(Monica Kim)의 경우 자신의 저서에서 6·25전쟁에 참전하여 어학 능력을 발휘한 일본계 미국인을 4천 명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sup>13)</sup>, 당시 직접 참전한 니세이의 증언에 따르면 1천 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sup>14)</sup> 하지만 당시 자료를 통해 보면 약 2천여 명의 니세이들이 6·25전쟁에 참여하여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다.<sup>15)</sup> 이러한 포로신문을 통한 정보획득은 바로 다양한

12) 한국인 요원 중에는 학생들로 구성된 정훈부대가 있었다. 북진 이후 북한지역의 선무를 위해 학생들로 제772부대 및 제773부대가 편성되었다. 중공군의 대거 남침후 이들 가운데 제772부대는 경상도 지역을 맡게 되어 부산에 정훈국 분실을 설치하고 대민선무, 부대정훈, 공비토벌 등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다. 30여 명이 선발되어 부산 광안리에서 포로신문관으로 두달 동안 활동하였다.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2 (중앙일보사, 1983), 351~357쪽.

13) Monica Kim, *The Interrogation Rooms of the Korean War*,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9, p. 124. 모니카 김의 저술은 'Interrogation'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쟁기 포로신문에 대한 심층적 분석보다는 제도나 절차에 대한 분석과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연구사적 면에서는 아쉽다. 즉 포로신문이 이루어지는 과정(특히 Phase I, II, III)이나 포로신문보고서에서 드러난 인종주의의 차별적 특성(북한/중공군 포로 - 한국인/니세이 - 백인 미군),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갈등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포로신문보고서 자체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없기 때문이다.

14) 이상호, 「한국전쟁기 연합국번역통역국과 북한문서의 노획」, 『역사와 현실』 통권 109호 (한국역사연구회, 2018).

15) 모니카 김은 자신의 저서에서 4,000이라는 수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일본계 미국인 퇴역군인들이 추정된 수치에서 가져왔다고 적었다. 하지만 실제 어학 능력을 발휘한 신문관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1950년 7월 ATIS의 병력 현원은

보고서로 발간되어 전투부대에 배포되었고 활용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를 위해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와 맥아더기념관(MacArthur Archives)에 소장되어 있는 연합국번역통역국(ATIS)의 포로신문보고서(Interrogation Report)<sup>16)</sup>를 활용하였다.

## 2. 6·25전쟁기 ATIS의 전선 투입

ATIS의 창설에 대한 내용은 앞선 연구 등으로 확인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ATIS의 공식자료인 당시 전쟁부(War Department) 문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인해 미국은 일본에 대한 반격을 준비했다. 1942년 9월 3일 소수의 미군 병력이 호주로 와서 남서태평양육군총사령부의 G-2내에 TIS조직을 준비했다. 1942년 9월 19일 총사령부의 지시하에 TIS는 사령부의 부대가 되었고, 이는 연합군 조직으로 발전하여 ATIS가 되었다.<sup>17)</sup>

---

469명이다. 이 가운데 정확한 일본계 미국인 숫자는 파악되지 않는다. 보통 6개월의 순환근무를 했으므로 병력 가운데 50%가 니세이라고 추정하면 총 숫자는 1,200~1,8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Organization, Purpose & Functions-Reorganization of ATIS HQs”,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A1, E,34 G-2 MIS Intelligence Div. General Correspondence, Box 19.

16) National Archives, RG 331, Allied Operational and Occupation Headquarters, World War II,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SCAP);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MacArthur Archives,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51.

17) “ATIS Progress Report, 1942.9.19.-1944.9.8.”, RG 165, Records of the

ATIS는 ‘적의문건’을 수집 번역하고 포로를 신문한 결과를 각 부대에 배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1944년 8월에 ATIS에는 20만건의 노획문서가 잔량으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좀 더 효율적으로 긴급 문서를 번역하기 위해 번역과(Translation Section)가 재조직되었다.

ATIS는 총사령부에 ATIS전선부대(Advanced ATIS: ADVATIS)를 설립한 뒤, 각 군사령부(Army), 군단사령부(Corps), 사단사령부(Division)에 전선파견대(Advanced Echelon)을 두고 포로에 대한 신문과 노획문서에 대한 분류, 저장, 분석, 번역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ATIS의 규모는 1945년 말 가장 규모가 컸는데 이때 인원은 약 2,600여명이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일본계 미국인 2세(일명 니세이)였다.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ATIS의 공식 역사에 따르면 ATIS는 포로신문조서와 ‘적의문건’을 포함하여 1만 8천건 이상을 번역하고, 1만 명의 포로를 신문하여 780여건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sup>18)</sup>

1945년 8월 아시아-태평양 전쟁 종료 후 ATIS는 9월 27일 선발대를 도쿄에 파견하였고, 1945년 11월 17일 도쿄로 이전하였다. 본부는 일본우편회사인 NYK빌딩에 자리를 잡았다.<sup>19)</sup> 이후 일본에 자

---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1860 - 1952, NM 84, E. 79  
War Department, Publication Files, Box 336A.

- 18) “Operations of the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GHQ, SWPA”(1948. 7), RG 331, Allied Operational and Occupation Headquarters, World War II,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SCAP), Assistant Chief of Staff, G-2, Public Safety Division, General File, 1946-50; 니세이의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활약에 대한 공식적인 미육군부의 공간사는 다음을 참조. James C. McNaughton, *Nisei Linguists-Japanese Americans in the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During World War II*.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2006.
- 19) “ATIS Monthly Report, 1945,10-11”,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1860 - 1952, NM 84, E. 80 SCAP Classified Memoranda, Directives 1944-46, Box 108.

리한 ATIS는 북한 및 중국, 소련으로부터 귀환하는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다. 1950년 5월에 종료된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68만 명의 송환자를 분류하고 이 가운데 3만 4천여 명의 송환자를 신문하고, 32만 건의 문서를 번역하여 대공산권 정보를 분석, 정리하였다.<sup>20)</sup>

1945년 9월부터 시작된 한반도 남부의 미 군정기에도 ATIS는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에 ATIS는 자신의 명칭을 숨기고 첩보대, 정보지대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관 자체보다는 다른 기관 즉 방첩대(CIC)나 민간통신검열대(Civil Communications Intelligence Group-Korea, CCIG-K)에 그 요원을 파견하였다. ATIS는 언론 및 서신 검열이나 대소련지역에 대한 신문(訊問) 활동을 통해 남한 통치에 있어 한 역할을 담당했다. 여기에 미 제24군단의 ATIS는 북한에서 남하하는 월남인과 만주나 북한으로부터 넘어오는 일본인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소련과 소련점령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였다.<sup>21)</sup> 이들은 1949년 6월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한반도로부터 공식적으로 철수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지자 ATIS는 다시 전시군첩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다시 요구되었다. 1950년 6월 25일에 ATIS의 병력인가는 187명의 군인과 255명의 군무원을 배정받았는데 이는 1946년 1월의 2,667명과 비교된다. ATIS가 1950년 9월에는 233명의 군인과 294명의 군무원으로 늘어났다.<sup>22)</sup>

20) "Importance of MIS Operations"(1950.5.15.),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A1, E.34 G-2 MIS Intelligence Div. General Correspondence, Box 19.

2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 이상호, 「미군정기 연합국번역통역국(ATIS)의 정보활동」, 『청계사학』 29 (청계사학회, 2025).

22) "ATIS-War Time Effort in Korea",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A1, E.34 G-2 MIS

미군의 북한군 포로에 대한 최초의 신문은 1950년 7월 4일 대전에서 수행되었다. 이 주체는 주한미군(USAFIK) 신문센터로 8명으로 구성되었고 미 공군의 “WRINGER” 프로그램 책임자 워커(Richard L. Waker) 소령이 지휘하고 있었다.<sup>23)</sup> 1949년부터 극동 공군이 수행하는 “Project WRINGER”는 러시아와 그 위성국가로부터 귀환한 전 일본군 전쟁포로를 신문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비밀 작전이었다.

1950년 6월 28일 한국전선에서의 작전지원을 위해 ATIS의 계획안이 마련되었다. 여기에는 각 사단에 어학 지원을 하거나 ATIS전선부대인 ADVATIS를 구성하여 파견하는 것이었다.<sup>24)</sup> 1950년 7월 8일 ATIS는 장교 3명과 병사 7명으로 구성된 파견대를 한국으로 보냈다. 1950년 7월 8일 ATIS가 파견한 신문팀이 대전에 도착했다. ATIS는 대전경찰본부 2층에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7월 10일에 북한군에 대한 포로신문을 시작했고, 당일 21명에 대한 신문을 완료했다. 하지만 전선의 불안정으로 인해 대전에서 철수 다음날인 11일에 김천으로 철수했다.<sup>25)</sup>

1950년 7월 15일 ADVATIS는 김천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한국군 헌병대 2층 건물에 주둔했다. 이 날 ADVATIS는 신문보고서를

---

Intelligence Div. General Correspondence, Box 20.

23) “Operation of PW Interrogation Teams in Korea” (1950. 7. 20),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A1, E.34 G-2 MIS Intelligence Div. General Correspondence, Box 15.

24) “Interrogation and Translation Support” (1950. 6. 29),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A1, E.34 G-2 MIS Intelligence Div. General Correspondence, Box 16.

25) “Current Status of ADVATIS” (1950. 7. 14),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A1, E.34 G-2 MIS Intelligence Div. General Correspondence, Box 22.

최초로 주한미군사령부 G-2에 보고했고, G-2는 미8군 사령부 하의 모든 신문 조직은 ADVATIS 부대장의 통제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sup>26)</sup> 7월 17일 미8군 사령부와 ADVATIS 합동으로 신문센터(Interrogation center)를 수립하고, 한국군으로부터 인계받은 포로 10명에 대한 신문을 시작했다.<sup>27)</sup>

전선부대인 ADVATIS는 7월 16일 북한의 남침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를 확보했다. 7월 16일 대전지역에 주둔하던 미 제24사단 21연대에 의해 노획된 북한 문서였는데, 이는 북한군 제4사단 예하 18, 16, 5연대에 이권무 사단장 명의로 하달된 6월 22일자 정찰명령서였다.<sup>28)</sup> 또한 ADVATIS는 추가로 북한군 제4사단의 작전명령 1호를 입수하여 유엔에 북한의 남침을 증명하는 증거문서로 제출하였다. 이 작전명령서에는 북한군 제4사단이 명령에 따라 38선 접경지역을 돌파하여 서울로 진출하는 계획이 수록되어 있었다.<sup>29)</sup>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이후 북한군 포로의 수와 노획된 문서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ADVATIS는 제한된 인원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ADVATIS의 또 하나의 주

26) "Status of ADVATIS"(1950. 7. 17),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A1, E.34 G-2 MIS Intelligence Div. General Correspondence, Box 22.

27) "Records of Events, Advanced Echelon"(1950. 7. 8~10),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A1, E.34 G-2 MIS Intelligence Div. General Correspondence, Box 22.

28) "Request for Information"(1950. 9. 16),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A1, E.34 G-2 MIS Intelligence Div. General Correspondence, Box 22.

29) "Documentary Evidence of North Korean Aggression"(1950. 10. 11),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A1, E.34 G-2 MIS Intelligence Div. General Correspondence, Box 16.

요 임무는 북한군 포로에 대한 신문이었다.

중공군의 공세로 인해 전황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자, 1950년 12월 1일 ADVATIS는 전방에 파견된 전방제대(AE)의 번역팀 및 포로 신문관들을 모두 후방으로 후퇴시켰다. ADVATIS는 부산 동래에 사령부를 두었고, 서울과 인천 지역에 배치되었던 산하 부대를 모두 대구로 이동시켰다.<sup>30)</sup> 12월 2일 현재까지 ADVATIS가 수행한 작업은 매우 방대하였다. 9만 5천명의 포로를 1차 심사했으며, 그 가운데 1760명의 포로들에 대한 신문을 수행하였고, 2788개의 신문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한 문서 수집에 있어서는 18톤에 해당하는 노획문서를 정리, 평가, 번역하였다.<sup>31)</sup>

이렇게 6·25전쟁 초기 ATIS는 ADVATIS를 파견하여 한국전선에서 포로신문, 주요문서의 번역 등을 통한 전략 및 전술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당시 주한 미8군, 극동공군, 국무부 신문팀(State Department Interrogation Team, ORO)등 공산권 자료를 확보하려는 다양한 기구들의 활동을 조정하여 이들이 입수한 주요 문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선적번호를 부여하였고, 이를 안전하게 본토로 이송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활약하던 ATIS는 1951년 2월 4일 제8238육군부대로 재조직되었으며, 12월 1일 극동군사령부 군정보대(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Group, 8238th Unit)로 재편되었다. 이후 MISG는 1952년 9월 1일 제500군정보대(500th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30) "Status of ADVATIS"(1950. 12. 26),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A1, E,34 G-2 MIS Intelligence Div. General Correspondence, Box 22.

31) "Message from Stark to Willoughby"(1950. 12. 2),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A1, E,34 G-2 MIS Intelligence Div. General Correspondence, Box 16.

Group)로 다시 개편되어, 6·25전쟁이 정전에 이르기까지 작전을 수행하였다.<sup>32)</sup>

### 3. 포로신문조서와 노획문서의 분류와 체계

1950년 7월 17일 유엔군사령부에서는 포로와 노획문서에 대한 작전명령 1, 2호를 ATIS에 하달했다.<sup>33)</sup> 주요 내용은 소련의 대북한 지원이나 전쟁 참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중점사항은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다.

- 1) 소련군이 북한군과 함께 한국 작전에 참여한 증거, 관련 인원, 임무, 통제 본부 등을 보고.
- 2) 소련이 공개적으로 북한군을 지원하거나 극동군사령부의 미국 시설에 대한 행동을 개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증거를 보고.
- 3) 북한군의 세력, 위치, 구성, 신원 확인을 보고.

포로와 노획문서에 대한 관리는 다음과 같았다.

- 1) TIS는 행정 통제는 주한미군사령관(CG, USAFIK), 작전 통제는 TIS 산하에 ADVATIS를 구축

32) "Lineage and Battle Honors Intelligence Support Complement, 8238th AU", RG 338, Record of U. 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

33) "Brief of Material in Intelligence Annexes to Operations Instructions 1, 2, and 4 which applied to MISDIV (TIS)"(1950. 7. 17),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A1, E.34 G-2 MIS Intelligence Div. General Correspondence, Box 15.

- 2) 어학 요원: 현재 절차는 계속 유효. 한국어 어학 요원이 없는 경우 일본인을 활용.
- 3) 자격을 갖춘 한국인 어학 요원 추가 확보.
- 4) FM 30-15(1945. 6. 11.)에 따라 정보 채널을 통해 처리된 압수 및 압수 문서.

그리고 3일 뒤인 7월 20일에 운영절차 규정 제1호를 통해 포로와 노획문서 취급에 대한 규정을 지시했다.<sup>34)</sup> 주요 규정은 1) 노획문서와 포로는 ATIS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2)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어학 요원을 확보하며, 3) 해군과 공군 요원 및 특수 기관 요원도 ATIS의 통제하에 운영하는 것이었다.

노획문서를 조사하여 A, B, S, C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분류등급에 따른 문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분류 : A - 모든 전역에 전술적 또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B - 전역 수준 이상의 정보가 담긴 문서  
S - 전역 수준의 정보와 전역 수준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C - 군사적 가치가 없는 문서
- 2) 모든 A, S급 문서는 사단으로부터 군단, 군단으로부터 군 그리고 ADVATIS나 ATIS로 전달
- 3) 모든 B급 문서는 사단에서 군 그리고 자세한 검토(scan)후

---

34) "FECOM SOPI No. 1 - Policy and Procedure Concerning the Use of Language Personnel and the Processing of Prisoners of War and Captured Documents in the Far East Command" (1950. 7. 20),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A1, E.34 G-2 MIS Intelligence Div. General Correspondence, Box 15.

직접 ADVATIS나 ATIS로 전달

- 4) C급 문서는 사단에서 군으로 보낸 후 검토(scan)후 파기. 하지만 사단파견대는 C급 문서를 배포용이나 기념품으로 보유할 수 있음.
- 5) 노획문서의 번호는 1로 시작. “Batch No”
- 6) 모든 번역 보고서는 “0001”로 시작.  
“24th Div LDT-0001”(Language Detachment Translation)

포로신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1) 호송, 보호 등의 임무는 헌병 담당.
- 2) 분류(인종 및 국적) : 한국인, 러시아, 중국, 일본, 기타
- 3) 포로신문보고서 표시

ADVATIS는 전선에 파견된 예하 부대를 통해 북한군 및 중공군 포로에 대한 신문, 각 파견대 및 사단 파견대에서 보내오는 북한 노획문서를 분류, 정리, 번역하여 전략첩보, 전술첩보 등을 분류하고 이를 도쿄의 ATIS본부로 이송하였다. ADVATIS는 처음에 극동공군의 담당자와 공동으로 신문했다. 결국 1950년 8월에 유엔군 아래 ADVA(UN)TIS가 한반도에 있어서 유엔군이 참가하고 있는 육해공군 전체의 공동조직으로 문서와 신문의 중앙집권적 관리체제가 정비되었다.

포로의 신문은 인천에서 가능한 한 3단계의 신문을 실행했다. 긴급한 현안 작전을 위해 전략적 신문(tactical interrogation)이 우선되었고, 10월말에는 중공군의 포로신문도 시작되었다.<sup>35)</sup>

이와 같이 ATIS는 6·25전쟁기 북한군 및 중공군 포로에 대한

35) 土屋礼子, 「占領軍の翻訳通訳局(ATIS)によるインテリジェンス活動」, 『Intelligence』 第17号, 2017年 3月, 110~123項

포로신문 및 노획문서 확보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1차 사료를 집대성하였다. 그 집대성의 결정체가 바로 포로신문 보고서이다.

포로신문보고서는 야전에서 공산군 포로(prisoners of war), 탈영병(deserter) 및 피난민(refugee) 들을 신문한 보고서를 통합 정보 형태로 재편집, 간행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6·25전쟁 발발 직후 미군은 포로신문보고서를 개별 보고서의 형태로 배포하다가, 좀 더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50년 8월부터 책자형태로 발간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들이 책자 형태로 발간된 것은 1950년 8월 25일부터 1951년 3월 30일까지 총 57권이다. 제1호에는 보고서 번호 600번부터 699번까지 100건씩 묶여서 간행되었는데, 이런 형태가 57호(1951년 3월 30일)까지 유지되었다. 책자는 생산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가 붙여졌으며, 1-21호까지는 신문보고서 100건씩, 22-57호까지는 50건의 포로신문보고서가 1권으로 묶여서 간행되었다.<sup>36)</sup>

[표 1] 맥아더기념관 소장 포로신문보고서 현황

보고서 번호	작성 시기	신문보고서 번호	총 매수	신문 건수	비고
TIS Interrogation Report Issue #1-15 North Korean Forces	1950.8.25.~ 11.1	600-2099	4,529매	1,500건	
ATIS Interrogation Report Issue #16-21 Enemy Forces	1950.11.8.~ 12.21	2100-2699	1,599매	600건	No. 17 결호
ATIS Interrogation Report Issue#22-57 Korean Operation	1951.1.8.- 3.30	2700-4450	6,995매	1,750건	No. 52, 53 결호
			13,123매	3750건	

36) MacArthur Archives,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51.

이 가운데 중공군 포로에 대한 신문보고서는 1950년 11월 8일부터 작성된 ATIS Interrogation Report Issue 16의 보고서 시리즈인 <Enemy Forces>부터 등장한다.

#### 4. 중공군 포로신문과 노획문서를 통한 정보 획득

##### 1) 포로신문(Interrogation)

포로신문보고서에 등장하는 최초의 중공군 포로는 1950년 11월 8일에 작성된 ATIS Interrogation Report Issue #16, Enemy Forces의 싱중산(生中山)이다.

### ~~CONFIDENTIAL~~

ATIS INTERROGATION REPORT NO. 2122 30 October 1950  
 FIELD REPORT (164 - MISBI - 1165) 26 October 1950  
 PW NAME: SYNG, CHUNG SAN (生中山) (Chinese)  
 RANK: Pvt  
 ORGANIZATION: 40th CCF Army, 3rd Brigade (also called Branch Unit),  
 60th Regt, 1st Bn, Transportation Co, 1st Flat, 1st Sqd.  
 DUTIES: Ammo Bearer  
 EDUCATION: None  
 AGE: 29  
 OCCUPATION: Laborer  
 ADDRESS: SANDONG HUB, CHIHAN FU City (CENTRAL CHINA)  
 (東山省龍南府城裡)  
 DATE & PLACE OF CAPTURE: 250700 K Oct 50 12 Km Northwest of PYONGYANG  
 by ROK (Vic of UNSAN).  
 INTERROGATOR: T.M.O.

[그림 1] ATIS Interrogation Report No. 2122<sup>37)</sup>

37) "ATIS Interrogation Report Issue No. 16 (1950,11,8.)", MacArthur Archives, RG 6,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51.

[그림 1]은 포로신문보고서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중산은 29세의 병사로 중공군 제40군 제3여단 제60연대 제1대대 수송중대 제1소대 제1분대원으로 1950년 10월 25일 오전 7시 평양의 북서쪽 12km 떨어진 운산지역에서 한국군에 의해 체포되었다. 체포 직후인 10월 26일 야전에 있는 사단 전방파견대에서 신문을 받고(164 MISDI - 1165) 본대로 이동하여 10월 30일에 ATIS 신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 나오는 신문관(Interrogator)은 T.M.O 약자로 되어 있는데 누구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다수의 다른 중공군 병사들을 신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싱중산의 포로신문보고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인적 사항에 대한 기본정보이고, 두 번째는 그가 속한 부대에 대한 정보이며, 셋째는 기타 정보이다.

싱중산은 중공군 포로에 대한 첫 번째 신문이므로 그에 대한 신문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그의 개별 신상에 대한 기술 이후 신문관이 그의 신문 진술에 대한 평가(Assessment)는 긍정적이다. “(포로가 제공한) 정보는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것 같다. 포로는 협조적이었지만 교육을 받지 못해 문자를 쓸 줄 몰랐다.”고 평가했다.<sup>38)</sup>

다음으로는 포로가 속한 부대의 편제 및 병력에 대한 내용이다. 제40군에서부터 수송중대 제1소대의 편제 상황을 자세히 기술한 후 추가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중공군) 병력의 50%는 무장을 하지 않았고 계급 휘장을 달지 않았다. 병력의 소수는 한국인(한국계 중국인)이었다.”

부대의 위치와 활동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후 포로 개인사에 대해 진술을 기록했다.<sup>39)</sup>

38) 위의 자료.

39) 위의 자료.

중국 중부 제남(Chinan Fu)에서 중국 국민당군에 징집된 이후 1948년 2월, 만주 봉천에서 탈영하여 귀향했다. 1949년 10월 중공군에 포로로 잡혀 공산주의 이념을 세뇌당한 후 50년 2월 징집되었다. 포로는 제40군 제3지대에서 박격포병으로 4개월간 훈련을 받았다. 부대는 1950년 7월 25일 관동주(KWANTUNG Province)에서 도보로 출발해 탕산(TANGSHAN)에 도착했다. 탕산에서 부대는 기차를 타고 안둥(ANTUNG)으로 이동했다. 1950년 10월 15일, 중공군 제40군은 24:00시에 압록강을 건너 급히 건설한 나무다리를 이용해 신의주로 들어갔다. 신의주에서 제40군은 평양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따라 산길을 이용해 운산 인근까지 진격했다. 제40군은 운산으로 가는 길목마다 참호와 포진지를 파고 포를 설치했다. 1950년 10월 24일, 중공군 부대의 움직임이 한국군에게 발각되어 공격을 받았다. 부대는 해산했고 포로는 1950년 10월 25일에 생포되었다.

이때, 운산지역에서 중공군과 조우한 부대는 백선엽 사단장이 지휘하는 국군 제1사단이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다. 중국의 공식전사에 따르면 중공군이 압록강을 도강한 것은 선발대가 10월 16일이고 본대가 도강한 것은 19일로 기록하고 있다.<sup>40)</sup>

그러나 중국의 공식 전사나 출판물에서는 이에 대해 다양한 시각

40) 중국의 공식자료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압록강 도강을 10월 19일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자료는 상이하다. 먼저 마오쩌둥이 저우언라이에게 보낸 10월 14일자 전보에 따르면 10월 19일 출동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정부기록보존소 편, 『한국전쟁과 중국』 2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2002), 21쪽.; 반면에 평터화이의 회고록에 따르면 자신은 “1950년 10월 18일 지원군의 선두부대를 따라 압록강을 넘었다.”고 진술했다. 정부기록보존소 편, 『한국전쟁과 중국』 2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2002), 190쪽. 2000년에 발표한 중국학자 난씨양(南湘)에 따르면 ‘제42군의 선두부대 제124사단의 1개 연대는 이미 16일 밤에서 17일 새벽 사이에 지안 쪽의 만포하구에서 조선으로 진입했다.’고 기술했다. 정부기록보존소 편, 『한국전쟁과 중국』 2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2002), 316쪽.

이 존재하고 있다. 펑더화이(彭德懷)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10월 18일 선두부대를 따라 압록강을 넘었다’고 기술했고, 중국의 한 잡지에서는 ‘제42군의 선두부대가 16일 밤에서 17일 새벽 사이에 지안쪽의 만포하구에서 조선으로 진입했다’고 적었다. 한편 중국의 6·25전쟁 공식 전사(戰史)에 따르면 제40군 선두사단이 10월 14일 저녁 도강을 시작하여 차량으로 북한의 정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sup>41)</sup> 중국의 공식 저술마다 실제 한반도로 진입한 시간에 대해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초로 신문을 받은 중공군 포로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10월 15일 24:00, 즉 16일에 도강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물론 포로의 진술의 신빙성은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포로 진술에 따르면 압록강 지역의 중공군 월경(越境)은 10월 16일이다.

이 외에도 추가적 정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중공군이 군대 내에 계급장(rank insignia)을 달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공군의 계급은 1955년에 정식으로 부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2)</sup>

둘째, 유엔군의 선전 전단에 대한 효과를 알 수 있는 진술이 있었다. 포로에 따르면 유엔의 선전 전단에는 포로가 받는 치료의 종류를 보여주는 사진과 포로가 매일 받는 식량 등의 양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어 군인들의 행복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내용이다. 중공군 병사들 상당수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선전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평

41)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305쪽.

42) 중국은 1955년 2월 중국인민대표 상임위원회 제1기 제6차 회의에서 군관복무조례를 통과시키며 계급제도를 정식으로 시행하였다. 국방군사연구소, 『중국인민해방군사』 (국방군사연구소, 1998), 285쪽.

가했다.

셋째, 중공군의 모든 움직임이 어둠 속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중공군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공군 제40군이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로 들어올 때 안동에서 북한군 군복으로 갈아입었다는 내용이였다. 이는 한반도 전선으로의 이동을 비밀리에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였다.

한편 중공군 장교는 ATIS의 장교가 신문을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를 보면 리우 핑창(劉炳璋)은 26세의 대위로 중공군 제66군 제197사단 제590연대의 작전 참모였다. 그는 1950년 11월 25일 태천 지역에서 사로잡혔고, ATIS의 김(Kim) 중위로부터 신문을 받았다.

**CONFIDENTIAL**

ATIS INTERROGATIONS REPORT NO. 2737

23 December 1950

FIELD REPORT (ADVATIS - 1246)

17 December 1950

1. PERSONAL DETAILS:

PW NAME: LIU, Ping Chang (劉炳璋)

RANK: Capt (大尉)

AGE: 26

DUTY: Regt Staff Officer (S-3)

UNIT: 66th Army, 197th Div, 590th Regt

EDUCATION: Central Military Academy, SIAN SHANSI, 1942 - 1946

OCCUPATION: Professional Soldier

PLACE OF CAPTURE: T'AECH'ON (泰川) Area

DATE OF CAPTURE: 25 Nov 50

PLACE OF BIRTH: CHINA, SHANTUNG-SHENG, TAIAN-HSIEN, TAWENKOU

(山东省泰安縣大汶口)

HOME ADDRESS: Same as above

INTERROGATOR: 1st Lt KIM (ATIS)

[그림 2] ATIS Interrogation Report No. 2737<sup>43)</sup>

43) "ATIS Interrogation Report Issue No. 22 (1951. 1. 8.)". MacArthur Archives, RG 6,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51.

이렇게 포로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일종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1951년 1월 17일에 작성한 중공군 포로의 부상 발생률에 대한 보고서를 살펴보자.<sup>44)</sup>

유엔군사령부에서는 중공군의 한파 대책에 대해 실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미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G-2)에서는 중공군 포로 가운데 98%가 동상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절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sup>45)</sup> 1950년 12월 19일 ATIS본부에서는 ADVATIS 부대장에게 중공군 포로를 대상으로 한 신문을 통해 부대 내 병사들 사이에서 추위 관련 부상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특별신문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sup>46)</sup>

이러한 배경하에서 작성된 '포로의 부상 발생률'에 대한 보고서는 6·25전쟁 기간 중 중공군이 겪은 한파로 인한 부상 발생률에 대해 125명의 포로에 대한 신문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125명의 신문대상자는 병원 환자인 A그룹과 부상자인 B그룹 등 2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A그룹인 병원 환자가 56명이고, B그룹인 부상자가 69명이다. 각각의 조사 보고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병원 환자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44) "ATIS Interrogation Report Issue No. 26 (1951. 1. 29)". MacArthur Archives, RG 6,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51.

45) "Telecom 270"(1950. 12. 18),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A1 E,34 G-2 MIS Intelligence Div. General Correspondence, Box 16.

46) "Extent of Cold Weather Injuries Among Chinese Troops"(1950. 12. 28),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A1 E,34 G-2 MIS Intelligence Div. General Correspondence, Box 16.

[표 2] A그룹(병원환자) 세부 내역

부대	수술 전	수술 후
제20군(제30야전군)	23	24
58사단	2	4
172연대	2	2
173연대	-	1
174연대	-	1
제60사단	21	19
179연대	2	
180연대	19	19
제89사단	-	1
267연대	-	1
제26군(제30야전군)	8	-
제76사단	5	-
228연대	5	-
제77사단	2	-
230연대	2	-
제88사단	1	-
263연대	1	-
제40군(제4야전군)	1	-
제120사단	1	-
359연대	1	-
합계		56
제20군		47
제26군		8
제40군		1

유병률: 56명의 포로가 진술한 병력 가운데 병이 발생한 범위는 중대 병력의 10%에서 100% 사이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40명의 포로는 병력 가운데 동상 발생률을 30%에서 70% 사이로 보고했으며, 가장 자주 언급된 비율은 “50% 이상”이었다. 56건의 보고서의 산술적 평균은 69.3%이다.

유형:

참호족(Trench foot)이 가장 자주 보고되었으며, 손과 귀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절단:

중공군 치료 하에서의 치료 및 절단 비율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확인할 수 없었다. 미국 군의관 치료 하에서 1951년 1월 4일까지 동상 환자의 44%에게 절단이 시행되었으며, 병원 당국은 절단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치료:

56명 중 2명만 중공군 내에서 요오드나 머큐로크롬으로 보이는 약물로 치료받았다고 응답했다. 다른 치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치료를 받은 사람들에 따르면, 요오드 치료도 매우 드물었다. 심각한 경우 가능하다면 후방으로 후송되었다. 현지 마을 주민들이 들것 운반에 동원되었다. 전투 부상자가 후송 우선순위를 받았으며, 동상 환자들은 신체적 한계까지 전선에서 계속 복무하도록 강요받았다. 걸을 수 없게 되면 후송되거나 방치되어 스스로 생존해야 했다. 많은 이들이 방치되어 사망했다. 상황과 개별 부대 지휘관에 따라 남겨진 병사들에게 하루 분량의 식량이 제공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식량과 무기 모두를 박탈당하고 일반적으로 방치되었다. 신문 대상자들은 이러한 처지를 전형적인 체념으로 받아들이며 눈에 띄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중국어 표현인 “방법이 없다(没有办法)”는 표준적인 답변이었다.

원인: 모든 경우에 습한 발과 극한 기상 조건에 장시간 노출이 동상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야간 강행군과 낮에 건조할 기회가 없었으며, 공습 우려로 인해 불을 피우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장교들과 일부 운 좋은 이들은 주변 마을에서 피난처를 얻었다. 대부분의 신발은 고무 신발이었지만, 고무, 패딩 면, 가죽 신발 모두 마찬가지로 젖었고,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동상을 예방할 수 없었다.

예방 조치: 특별한 지침이나 훈련은 없었다. 중국 북부 지역 출

신들은 “발을 따뜻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결과는 불가피하다”고 자진해서 말했다.

[표 3] B그룹(부상자) 세부 내역

부대	인원수	부대	인원수
제30야전군	34	제4야전군	35
제20군	13	제38군	
제59사단	1	112사단	
제60사단	5	113사단	
제64사단	1	114사단	
제89사단	6		
제26군	16	제39군	
제76사단	4	115사단	
제77사단	6	116사단	
제78사단	6	117사단	
제27군	3	제40군	
제79사단	1	119사단	
제81사단	2	120사단	
제29군	2	제42군	
제67사단	2	124사단	
		125사단	
		126사단	
		제50군	
		149사단	
		제66군	
		197사단	
합계			69
제30야전군			34
제4야전군			35

유병률: 중대별 발병률은 2%에서 100% 사이로 보고되었다. 60건의 보고서에서 표시된 수치의 산술적 평균은 20%였다.

의료 지원: 추위 관련 부상은 현장에서 치료받을 수 없었다. 36명의 포로가 심각한 사례로 보고되어 이송되었으며, 28명은 추가적인 정보가 없었고, 1명은 방치되었다고 알려졌으며, 4명은 현장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보고되었다.

원인: 모든 사례는 극한 기상 조건에 장시간 노출되어 받을 건조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공습 우려로 인해 불을 피우는 것이 금지되었다.

예방 조치: 특별한 예방 조치가 권장되지 않았다.

이렇게 개별 포로신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특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아래 [표 4]는 당시 포로들을 신문한 포로신문관의 소속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 신문관(Interrogator) 가운데 ATIS 소속 신문관은 전체 포로 498명 가운데 88명(17.6%), 미 극동공군의 경우 22명(4%), 한국군이 8명(0.4%)의 포로를 신문했다. 기타는 380명으로 76.3%을 차지한다. 다만, 기타로 분류된 요원 가운데 대부분이 ATIS요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당시 ATIS요원에 대한 신문은 대체로 특수요원(Special agent)로 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TIS의 비율은 90%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중공군 포로신문 중 포로신문관의 군별 현황

군별	ATIS 30명		FEAF 5명		한국군 2명		기타 70명	
	T. Kato 상병	10	LEE 기술병장	11	I.M.Wu 소위	7	W. T. O (한국어/중국어)	36
	Kim 이병	8	A.A.Liu 병장	5	Yeun, Chang Song 중위	1	C. H. S. (한국어/중국어)	34
	Monroe 대위	7	Sato 병장	4			M. T.	22
	Hattori 상병	6	Ahn 병장	1			NY	22
	Leong 중사	6	LEE 중사	1			G. W. A.	21
	Kim 중위	5					C. M. A	20
	Mori 상병	5					H.N.	18
	Q I Jeu 이병	5					T. M. O.	18
	LEE 이병	4					G.N.Y. (한국어 / 중국어)	17
	Zane 이병	4					T.O.	15
	Fukushima 중사	3					TM	15
	Hee 이병	3					Taniguchi 상병	11
	Miyoshi 병장	2					HN	7
	Peter Kim 중위	2					Ando 병장	6
	Wong 이병	2					Kume 이병 / 일병	6

Wu 이등상사	2				Sasaki 병장	6
Albert A. Liu 병장	1				Kitsu 병장	5
B. Sakai 상병	1				Matshushita 일병	5
E. Miyoshi 상병	1				RKS	5
Hamasu 상병	1				Tsurumaki 상병	5
Jick Lee 이병	1				Akashi 이병 / 일병	4
Komura 상병	1				Shigekuni 일병	4
Matsumoto 상병	1				G. W.	3
Nakanishi 상병	1				Kimoto 상병	3
Nishimura 상병	1				Minami 일병	3
Noda 상병	1				Motoyama 일병	3
Ouchi 병장	1				Okamura 일병	3
SAKAI 상병	1				RKN & AHS	3
Suda 이병	1				Takeuchi 상병	3
T. Ono 상병	1				Yamamoto 일병	3
					C.C.S.	2
					DGC	2
					Holden 상병	2
					HY & AHS	2
					LTK & AHS	2
					Mimaki 소위	2
					Ozaki 상병	2
					Seu 상병	2
					Tsutakawa 이병	2
					Hamamoto 상병 외 35명	36
합계	88	합계	22	합계	8	합계 380
총계 498명 (중공군 포로 760명 중 262명의 경우 신문관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음)						

위 표를 통해 볼 때 신문관 가운데 니세이로 간주될 수 있는 인물들은 전체 신문관 107명 가운데 46명인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신문대상 포로의 27%에 해당하는 132명을 담당하고 있었다. 여기에 이름이 약어로 표시되어 있는 인물 가운데에서도 니세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시 포로신문의 상당 부분을 일본계 미국인 2세인 니세이가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같은 자료에 나타난 북한군에 대한 신문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문관

가운데 ATIS의 경우 전체 포로 1,562명 가운데 28%, 미 극동공군의 경우 16%, 한국군이 1.1%, 기타 28.6%로 분포되고 있다. 여기서도 ATIS의 비율이 50%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로신문을 통해 획득된 정보는 재분류 되어, 북한군과 중공군 부대의 편성이나 규모, 지휘관계 등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로 작성된다. 예를 들어 “ATIS Research Supplement Interrogation Reports(1950. 12. 15)”에는 다음과 같이 개별 포로신문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북한군 통신 North Korean Signal Communications  
중공군 군수조달 및 북한인 훈련(CCF Procurement and Training of Korean Personnel)  
북한군 제8사단(North Korean 8th Infantry Division)  
북한군 제105탱크사단(North Korean 105th Tank Division)

한편 포로신문을 종합하여 ATIS 조사정보국(Research and Information Section)에서는 중공군 내부의 조선인(North Korean in the CCF) 같은 내용의 심화된 보고서를 생산해 냈다.<sup>47)</sup>

## 2) 노획문서(Enemy Documents)

포로신문과 함께 중공군으로부터 압수하거나 노획한 문서 등도 ATIS에 의해 체계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는 맥아더 장군이 재임하던 1950년 6월부터 1951년 4월까지 작성된 문서군이다. TIS ‘적의문건’(Enemy Documents)에는 보충자료(Supplement)가

---

47) “Special Report No. 70”,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MIS Intelligence Division, General Correspondence, Box 19.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적의문건’ 가운데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서군 즉 지뢰매설, 부대전술, 무기조작 편람 등을 전부 완역하여 회람하였다.

‘적의문건’ 시리즈에서 최초로 확인되는 중국 측 자료는 1950년 11월 16일 발행된 제7집(Issue No. 7)에 나오는 1950년 8월 19일자 중국 스촨지역의 서부군구에서 김일성을 응원하는 편지이다 [문서번호 200714].<sup>48)</sup> 이 문서는 1950년 10월 어느 날 평양의 소련대사관에서 노획한 것으로 10월 28일 ATIS가 입수하였다.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일성 장군과 모든 평화 수호 동지 여러분께.

미 제국주의자들의 사주를 받은 이승만 꼭두각시 군대에 의해 조국이 침략당했다는 소식에 우리 모두는 매우 격분했습니다. 여러분의 용맹과 용기로 우리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전멸을 피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서번호 200715]와 [문서번호 200716] 역시 각각 중국 서부 스촨지역의 농민들이 8월 20일 및 9월 13일자 김일성 및 북한주민들에게 보내는 격려 편지로 소련대사관에서 노획하였다.

1950년 9월 26일 서울에서 노획한 [Item 200938]은 중공군 신분증명서이다. 1950년 10월 3일 ATIS에 입수된 이 신분증의 주인공은 원용주(WON, Yong Chu)로 제4야전군 린바오가 발행한 컬러로 인쇄된 신분증을 가진 제4야전군 독립 15사단 소속이었다. 독립 15사는 조선인으로 구성된 중국인민해방군으로 1950년 4월 말 북상하여 북한으로 들어간 부대였다. 이 외에도 유엔군의 북진

48)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Enemy Documents” Issue No. 7 (1950, 11, 16),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중에 입수한 중공군 정규 신분증[Item 200928]이 확인된 경우가 다수 있다.<sup>49)</sup>

다음으로는 사진 자료로 묵텐(현재의 심양)에서 찍은 1950년 7월 25일자 “중국해방군(Chinese Liberation Army) 제4야전군 제49야전포병대대 2중대”라는 캡션이 찍힌 사진이다[200879].<sup>50)</sup>

이어서 확인되는 자료는 1950년 12월 13일 발행된 제11집(Issue No. 11) 중공군 제66군의 운산지구 전투결과 총결 보고서[201371]이다.<sup>51)</sup>

운산전투는 국군 제1사단과 미군 제1기병사단이 1950년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구룡강 연안인 운산지역에서 중공군 제39군과 조우한 전투이다. 이 운산전투로 인해 중공군의 참전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중공군은 이 전투에 대한 사후 전투보고서를 1950년 11월 20일자로 작성하여 회람했다. 이를 국군 제1사단이 일주일 이 지나지 않은 1950년 11월 26일 노획하였고, 이를 번역하여 ‘적의문건’으로 발간 배포하였다. 중공군은 운산전투가 끝난지 2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전투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노획한 부대로부터 계통을 밟아 12월 11일 전달받은 ATIS는 2일 만에 번역하여 발간하였다. ATIS가 노획한 문건은 중공군 제39군이 작성한 것을 제66군에서 복사하여 배포한 것이다. 따라서 배포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

49)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Enemy Documents” Issue No. 10 (1950. 12. 6),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50) 위의 자료.

51)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Enemy Documents” Issue No. 11 (1950. 12. 13),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제39군이 운산 전투의 경험에서 얻은 공격 전술에 대한 특별한 인쇄물을 소개합니다. 먼저 부대 내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대는 작전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호는 특별 증쇄된 책자로, 이 책자를 받는 모든 대원들이 공부하여 다른 대원들에게 지식을 전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운산 전투보고서에서 중공군 제39군은 운산전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이것이 사단, 연대, 특별 대표 회의에서 우(원문에는 UNG이라 표기)<sup>52)</sup> 장군이 내린 결론입니다. 중앙 지점과 각 부대로의 보급을 위한 보급과 편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군수 요구 사항과 함께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자가 인쇄된 이유입니다. 이 책자에는 전투 초기에 우리 자신의 경험이 담겨 있으며 그 당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용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인 모든 부서의 전폭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 강연이 끝나면 우리는 공격에 나서서 여러분의 이상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운산전투 결과보고서는 국군 제1사단 및 미군 제1기병사단과의 전투 경험을 다양한 방면에서 조망하였다. 현재도 중국에서는 운산 전투를 중공군이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 처음으로 미군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한 성공적인 전투로 기록하고 있다.<sup>53)</sup>

이외에도 연길 출신의 중공군 김호길이 1947년 6월부터 1950년 3월까지 이동로를 작성한 일기[201021]<sup>54)</sup>, 중공군 소부대야간전투

52) 당시 중공군 제39군의 군장은 우신환(吳信泉)이다.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553쪽.

53) 왕수평 지음, 나진희·황선영 옮김, 『한국전쟁』 (글항아리, 2013), 270쪽.

54)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Enemy Documents” Issue No.

자료[201961]<sup>55)</sup>, 1951년 1월 24일에 작성된 중공군의 백운산 일대의 전투명령서철[201949]<sup>56)</sup>, 1951년 1월 9일 작성한 중공군 제38군의 제3차 전역 경험 총결 보고서[202028]<sup>57)</sup> 등이 있다

‘적의문건’ 시리즈 이외에도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술문건은 보충문건(Supplement)으로 전문 번역해 발간, 배포했다. 1950년 12월 16일에 배포한 문건인 4호 문건(No. 4)의 경우 1950년 8월 진주 부근에서 노획한 중국어로 쓰여진 문서로 지뢰 매설 방법 및 전략 등을 수록하고 있다.<sup>58)</sup> 이는 앞서 1950년 8월 26일자 ‘현안번역(Current Translation)’ 제1호로 번역해서 배포한 것으로 그 정보가치의 중요성으로 인해 보충문건으로 재발간돼 배포한 것이다. 이 문건은 당시 진주 부근에서 활동한 북한군 제6사단(방호산)이 사용한 것으로, 북한군 제6사단은 중국인민해방군 제166사단이 북한에 들어와 부대를 재편한 뒤 전쟁에 참여했다. 이는 결국 북한군 상당수가 중공군의 전투 기술과 기재를 활용해 전투를 치렀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북한군 및 중공군 포로에 대한 신문 및 각종 문서를 수집

---

15 (1951. 1. 3),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55)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Enemy Documents” Issue No. 27 (1951. 3. 7),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56) 앞의 자료.

57)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Enemy Documents” Issue No. 29 (1951. 3. 17),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58)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Enemy Documents - Supplement” Issue No. 4 (1950. 12. 16),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정리하여, 전략정보(Tactical Intelligence) 및 지리정보(Geographic Intelligence)로 분류 정리하기도 하였다. 이후 ATIS는 극동군사령부 군 정보대로 재편되었고, 다시 500군정보대로 개편되어 정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작전을 수행하였다.

## 5. 결 론

2023년에 출간한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명예교수인 고(故) 이정식의 자서전에 따르면 그는 6·25전쟁에서 중공군 포로를 신문하는 미군의 중국어 통역관으로 활동했다.<sup>59)</sup> 스칼라피노와 함께 한국의 공산주의 운동사를 집대성한 그는 온양에 있는 국민방위군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동래 온천 부근의 한 부대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는데 이 부대 이름을 ADVATIS라고 기술했다. 바로 ‘ATIS전선부대’였다. 이정식의 근무 경력이 어떠한지는 더 이상 1차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중공군 포로신문과 관련해 이정식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미군이 이러한 신문을 통해 중공군의 폭격 목표를 찾았던 것으로 추정했다.

ATIS관련 자료를 확인하다 보면 이정식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의 사실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유엔군은 포로신문과 일명 ‘적의문건’을 통해 중공군의 부대 규모, 편제, 지휘관의 구성, 지휘 체계 등 전쟁 전반에 걸친 적의 정보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한때 1961년에 발간된 애플맨(Roy E. Appleman)의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라는 미 육군의 6·25전쟁 전 사시리즈의 한 저서가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유는 그 책

59) 이정식, 『이정식 자서전』 (일조각, 2023), 285~286쪽.

에서 밝힌 ‘중국인민지원군’의 사령관을 펑더화이(彭德懷)가 아닌 린 바오(林彪)로 적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는 의도된 실수였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ATIS에 대한 존재를 1974년에야 공개했고, 노획문서의 공개는 1977년에야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에 참전한 니세이 병사의 수를 2천 명에서 3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sup>60)</sup> 이 가운데 6·25전쟁에서 활약한 신문 및 번역, 통역을 위한 니세이의 수는 5백 명에서 1천 5백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니세이를 통해 이들에 대한 신문을 감행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sup>61)</sup>

결국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한 포로신문은 대부분 니세이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졌고, 이는 전투부대가 필요로 하는 북한군 및 중공군의 전투서열, 지휘체계, 전투 수단 등 아주 중요한 정보를 유엔군에 전달함으로써 전쟁수행에 중요한 기여를 담당하였다.

끝으로 연구사적 공백에 대해 언급해 보면, 니세이나 백인 신문관 사이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 한국인 지식인 계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이들에 대해 확인된 자료가 매우 적어 제대로 분석하기에는 어렵지만, 이들이야말로 포로신문에 있어 일정 정도의 역할을 담당했다. 유학생, 영어 전공 교수 등 고등교육을 이수하여 영어에 능통했던 당시 지식인들은 생활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ATIS에 다수가 취업하였고, 이들이 포로신문에서 보조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명단이나 활동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 향후 자료의 발굴 여부에 따라 이들에 대한 역할이 소명된다면 포로신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60) 柳田由紀子, 앞의 책, pp. 218~219.

61) 柳田由紀子, 위의 책, p. 222.

## 〈참고문헌〉

- 외무부, 『제네바협약: 1949년 8월 12일』 (외무부, 1965).
- 정부기록보존소 편, 『한국전쟁과 중국』 2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2002).
-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동참모본부, 2003).
- MacArthur Archives,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51.
- NARA,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1860 - 1952, NM 84, E. 79 War Department, Publication Files.
- NARA, RG 331, Allied Operational and Occupation Headquarters, World War II,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SCAP), Assistant Chief of Staff, G-2, Public Safety Division, General File, 1946-50.
- NARA, RG 338, Record of U. 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
- NARA,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Translator & Interpreter Service, General Correspondence 1947-50.
- NARA,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MIS Intelligence Division, General Correspondence, Box 19.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국방군사연구소, 1996).
- 국방군사연구소, 『중국인민해방군사』 (국방군사연구소, 1998).
- 김상규, 「한국전쟁기 중국인민지원군 노획문서 고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미 NARA RG 242문서군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제77집 (한국외국어대학교역사문화연구소, 2021). DOI : 10.18347/hufshis.2021.77.83.

- 김승태, 「6·25전란기 유엔군측의 포로정책과 기독교계의 포로선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1호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4). UCI : G704-001259. 2004..21.006.
- 김학재, 「진압과 석방의 정치: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와 국민형성」, 『제노사이드 연구』 제5호 (제노사이드연구회, 2009).
- 김행복, 『반공포로 석방과 휴전협상』 (백년동안, 2015).
- 김혜인, 「망명의 기록, 난민의 시간: 한국전쟁기 중립국행 포로 주영복의 수기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48집 (상허학회, 2016). DOI : 10.22936/sh.48..201610.002.
- 박영실, 「정전협정 체결 후 비무장지대 반공포로수용소 발생사건」, 『아세아연구』 제58권 제4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4). UCI : G704-000745.2014.57.4.007.
- 백재예, 「체계적으로 관리된 성폭력, 일본군 ‘위안부’제도: 연합군번역통역부(ATIS) 심문 보고서를 통한 재고찰」, 『사회와역사』 통권 114호 (한국사회사학회, 2017). DOI : 10.37743/SAH.114.5.
- 방준영, 「아이젠하워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승인과정과 반공포로 석방」,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0호 (한일군사문화학회, 2015). UCI : G704-SER000009034. 2015.20..008.
- 왕수정 지음, 나진희·황선영 옮김, 『한국전쟁』 (글항아리, 2013).
- 윤성준, 「한국전쟁기 북한의 점령정책과 조선인민의용군의 동원: 미군포로심문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89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19). DOI : 10.29004/jkmch.2019.6.89.173.
- 이상호, 「한국전쟁기 미군의 공산포로 ‘미국화교육」, 『역사와 현실』 제78호 (한국역사연구회, 2010). UCI : G704-000054.2010..78.011.
- 이상호, 「전후 연합국번역통역국(ATIS)의 일본인 귀환자 심문과 공산권 첩보활동」, 『한일민족문제연구』 제33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17).
- 이상호, 「한국전쟁기 연합국번역통역국(ATIS)과 북한문서의 노획」, 『역사와 현실』 통권 109호 (한국역사연구회, 2018). DOI : 10.35865/YWH.2018.09.109.493.
- 이상호, 「포로신문보고서를 통해 본 일본군 출신의 북한군 활동과 북한의 친일파 숙청」, 『한일민족문제연구』 제39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20). DOI : 10.35647/kjna.2020.39.125.

- 이상호, 「미군정기 연합국번역통역국(ATIS)의 정보활동」, 『청계사학』 29 (청계사학회, 2025) DOI:http://dx.doi.org/10.33835/cghs.29.15.
- 이선우, 「한국전쟁기 중립국 선택 포로의 발생과 성격」, 『역사와현실』 제90호 (한국역사연구회, 2013). UCI : G704-000054.2013..90.010.
- 이정식, 『이정식 자서전』 (일조각, 2023).
- 정병준, 「중립을 향한 ‘반공포로’의 투쟁: 한국전쟁기 중립국행 포로 76인의 선택과 정체성」, 『이화사학연구』 제56집 (이화사학연구소, 2018). DOI : 10.37091/ewhist.2018..56.001.
- 정병준, 「한국전쟁기 미군이 노획한 ‘북한노획문서’의 구성과 특징」, 『이화사학연구』 제62집 (이화사학연구소, 2021). DOI : 10.37091/ewhist.2021..62.008.
- 정찬대, 「광주상무대포로수용소 실태 현황과 포로석방 사건: ‘반공포로수용소’ 사례 연구」, 『역사연구』 제37호 (역사학연구소, 2019). DOI : 10.31552/jh.2019.12.37.517
-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2 (중앙일보사, 1983).
- 최혜린, 「6·25전쟁기 미군의 포로 정책 전개 양상: 전범조사부와 민간정보교육국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제63집 (서울대학교인문대학국사학과, 2017).
- Blair, Clay, *The Forgotten War: America in Korea 1950-1953*, New York: Doubleday, 1987.
- Corbin, Alexander D., *The History of Camp Tracy: Japanese WWII POWs and the Future of Strategic Interrogation*, VA: Ziedon Press, 2009.
- Eiji, Takemae, *Inside GHQ: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and Its Legacy*, NY: Continuum, 2002.
- Gaddis, John Lewis, *We Now Know: Rethinking Cold War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존 루이스 개디스 지음, 박

- 건영 옮김,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 (사회평론, 2002)]
- Jager, Sheila Miyoshi, *Brothers at War: The Unending Conflict in Korea*, New York: Norton, 2013.
- McNaughton, James C., *Nisei Linguists—Japanese Americans in the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During World War II*,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2006.
- Monica Kim, *The Interrogation Rooms of the Korean War*,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9,
- Morris-Suzuki, Tessa, *The Korean War in Asia—A Hidden History*, Rowman&Littlefield, 2018.
- 山本武利, 『日本兵捕虜は何をしゅべったか』, 文藝春秋, 2002.
- 柳田由紀子, 『二世兵士激戦の記録 日系アメリカ人の第二次大戦』, 新潮社, 2012.
- 土屋礼子, 「占領軍の翻訳通訳局(ATIS)によるインテリジェンス活動」, 『Intelligence』 第17号, 2017年 3月.

<Abstract>

## ATIS(Allied Translator & Interpreter Section) and Communist Chinese Forces POW Interrogation during the Korean War

Lee, Sang-Ho

(Senior Researcher,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ROK)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terrogators and how the information gathered by them was used in the interrogation of Chinese POWs during the Korean War. These interrogators can be divided into four main categories. They include US Far East Air Force agents, ATIS(Allied Translator & Interpreter Section) agents, South Korean agents, and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s agents. ATIS agents make up the majority of these, and most of them are Japanese-American second generation (Nisei).

Wit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TIS rapidly reorganized the ATIS Frontline Unit (ADVATIS) on July 7, 1950, to be deployed to the Korean front. ADVATIS was responsible for interrogating North Korean and Chinese prisoners of war, sorting, organizing, and translating North Korean captured documents sent by each detachment and division, categorizing them into strategic and tactical information, and transferring them to ATIS headquarters in Tokyo.

ADVATIS's work was enormous. As of December 2, 1950, it had

conducted the initial screening of 95,000 POWs, interrogated 1,760 of them, and prepared 2,788 interrogation reports. In addition, it had organized, evaluated, and translated 18 tons of captured documents.

In addition to POW interrogation, ATIS began to systematically translate documents seized or captured from the Chinese military. The Enemy Documents series is a representative example. The information was also categorized and organized into Tactical Intelligence and Geographic Intelligence.

In the end, most of the POW communications on the North Korean Army and the Chinese Communist Army were produced by Nisei, which 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conduct of the war by providing the UN forces with vital information on the North Korean Army and the Chinese Communist Army's battle order, command system, and means of combat that combat units needed.

Keyword : Interrogation, Interrogator,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Nisei(Japanese-American second generation), Interrogation Report, Enemy Document, Tactical Intelligence, Geographic Intelligence

원고투고일 : 2025. 7. 10. 심사완료일 : 2025. 8. 22. 게재확정일 : 2025. 9. 3.